

기획연주회

황유원 시인의 북콘서트 | 동물 식물 그냥 물

2025. 11. 24. |월| 오후 7:30 위트앤 시니컬

제46회 정기연주회

2025. 11. 28. |리| 오후 7:30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주 최 작곡동인 소리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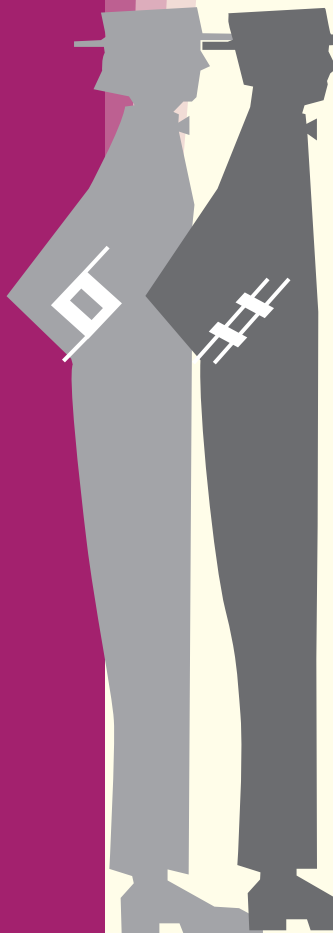
주 관  현대문화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위트 앤 시니컬

예매처  예술의전당 1668-1352 /  NOL ticket 1544-1555 /  yes24 1544-6399

입장권 전석 2만원(학생 50%)

문 의 02) 2266-1307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작곡동인 소리목

1989년 4월 창립한 작곡동인 소리목의 '소리'는 음악을 의미하며 '목'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말 '모꼬지'의 첫 발음으로서 앞으로 우리 창작음악계에 공헌을 하고자 하는 회원들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작곡동인 소리목은 <책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삶의 파장과 동시대의 시대성이 반영된 문학작품을 소재로 하여 순수창작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며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 왔습니다.

소리목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플랫폼을 고민할 수 있는 창작의 장을 지원하는 의미로 꾸준히 개최하고 있는 정기연주회와 별도로 기획연주회를 구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황유원 작가님의 『하얀 사슴 연못』과 『초자연적 3D 프린팅』으로 두 번의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기획연주회에서는 황유원 작가님의 북콘서트 '동물 식물 그냥 물'이 진행되고, 백자영의 '수련', 서유라의 '물을, 말하다'가 연주됩니다. 제46회 정기연주회에서는 강소정의 '밤의 행글라이더', 최창석의 '보이지 않는 씨앗', 이다예의 'ZZZ', 박은경의 '하얀', 이재홍의 'Two Poetic Pieces', 유도원의 '풍경 II'가 연주됩니다. 이번 연주회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작곡가들의 고민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소리목에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청중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작곡가 분들 그리고 연주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연주자 분들, 항상 함께 해주시는 현대문화기획 관계자 분들과 음악회를 더욱 뜻깊게 준비해 주신 소리목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곡동인 소리목 회원 일동

PROGRAM

황유원 시인의 북콘서트 동물 식물 그냥 물

백자영 기타와 마임니스트를 위한 〈수련〉 (2025)

Gtr. 이노영 / Mime 최정산

서유라 플루트 솔로를 위한 〈물을, 말하다〉 (2025)

Fl. 승경훈

시인 황유원

서강대학교 종교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3년 『문학동네』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인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으로 『일요일의 예술가』, 『하얀 사슴 연못』, 『초자연적 3D 프린팅』, 『세상의 모든 최대화』 등이 있다.

김수영문학상, 대한민국예술원 젊은예술가상, 현대문학상, 김현문학패, 노작문학상을 수상했다.



기타와 마임니스트를 위한 <수련> (2025)

물위에 떠있는 꽃, 수련

물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뿌리들이 여기저기 얹히고설켜 있는 모습이 상상된다.

물속의 층과 물위의 층, 두 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수련을 보며 선율과 반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타를 선택하였다.

기타의 가장 저음인 E음을 수련의 뿌리의 모습으로 상상하며 반복시켰고, 그 위에 여러 화음이 쌓여가며 수련이 물위에 피어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백 자 영

-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대학 수료
- 오스트리아 그라츠 음악대학 석사 졸업 및 Postgraduate 과정 수료
- 오스트리아 유덴부르크시 아티스트레지던스 선정
- 현) 단국대, 숙명여대, 한세대 출강



플루트 솔로를 위한 <물을, 말하다> (2025)

물은 고요하기도 하고 요동치기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때로는 길을 만들기도 한다. 황유원 시인의 <사슴과 유리잔>, <하얀 사슴 연못> 두 편의 시를 바탕으로 작업한 이 곡은 물이 가진 다양한 속성을 플루트의 음색으로 담아낸다.

잔잔함과 일렁임으로 우리의 일상과 늘 함께하는 물은 또한, 정해져 있지 않은 흐름과 울림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 그려보며 이를 여러 음악적 제스처로 연결시켜 보았고 연주자의 자유로운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다시 찾아온 겨울,

“놀랍게도 물은 늘 그곳에 있다”

서 유 라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동 대학원 석사 및 박사
- ACL-Korea 신인콩쿨 우수상
- 대한민국 실내악 작곡제전 젊은 작곡가 공모, 화음챔버오케스트라 프로젝트 공모 선정
- 현) 이화여자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출강



이노영 | Guitar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석사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국제 기타 콩쿠르 2위, 베를린 국제 기타 콩쿠르 3위
-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수원대학교,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최정산 | Mime

- 2011년부터 움직임을 기반으로 한 마임니스트로 활동 중
- 팀 작업 '정크 클라운', '카툰 마임쇼', '유랑 기사', '도둑맞은 새', '노래가 되자', '우울해도 괜찮아' 등 참여
-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2', 영화 '버닝' 출연 및 다수의 개인 작품에 참여



승경훈 | Flute

-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학사 및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역임
- 현) CTS 교향악단 수석, 디베르 목관오중주, 현대음악앙상블 위로 멤버,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강사



PROGRAM

강 소 정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밤의 행글라이더〉 (2025)

Bar. 박상민 / Pf. 정선인

최 창 석 플루트 솔로를 위한 〈보이지 않는 씨앗〉 (2025)

Fl. 송경훈

이 다 예 25현 가야금, 타악기와 CRT-TV를 위한 〈ZZZ〉 (2025)

가야금 정부경 / Perc. 김승수

- INTERMISSION -

박 은 경 메조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하얀〉 (2025)

M. Sop. 김윤희 / Pf. 김아름

이 재 흥 〈Two Poetic Pieces〉 for Solo Cello (2025)

I. 무덤덤한 무덤 II. 밤의 아라베스크

Vc. 박기흥

유 도 원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 (2025 개작)

해금 조혜령 / 가야금 서은영

바리톤과 피아노를 위한 <밤의 행글라이더> (2025)

어쩌면 “밤의 행글라이더”라는 제목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싶다.

깜깜한 밤에 띄우는 행글라이더, 그리고 약하다약한 고무 동력기를 장착한 행글라이더가 결국 나와 하나가 되고, 나는 그에 올라타 함께 비행하며 불 꺼진 밤을 여행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행글라이더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마침내 나와 함께 추락한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일 밤 또 다른 비행을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을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

뭔가 돌우어진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Eb’ 음을 전체의 중심음으로 삼아 다양한 색채의 화음을 배경으로, 비행하고 추락하는 행글라이더와 밤을 묘사하였다. 피아노가 행글라이더 역할을, 바리톤이 나(화자)의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곡의 첫 부분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프레이즈는 비행의 시작과 순항, 그리고 또 다른 비행을 희망하는 의미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강 소 정

- 선화예고, 서울대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명지대, 가천대, 호서대 강사 역임
- 현) 서원대, 선화예고, 계원예고, 덕원예고 출강, 작곡동인 소리목, 하나님의 작곡가 회원

플루트 솔로를 위한 <보이지 않는 씨앗> (2025)

'The Invisible Seed' for Flute Solo(플루트 솔로를 위한 '보이지 않는 씨앗')는 황유원의 시 <수련>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상상의 세계 속에서 수련이 자라는 모습을 중첩의 이미지와 생명체를 품은 씨앗이 발아하려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 흰 종이에 수련을 피우려면 우선 종이를 물로 채워야 한다...그냥 종이에 '물'이라고 쓰는 것이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번..."에서 중첩의 아이디어를 그리고 "...씨앗은 숨겨져 있는 편이 훨씬 더 씨앗답다..."에서 생명체를 품은 씨앗의 무한한 가능성의 의미를 음악 속에 담고 싶었다.

최창석

- 미국 Queens College CUNY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M.A.)
- 영국 University of York 작곡 박사(Ph.D.)
- 오페라 '녹두꽃이 피리라' - 서울국립극장 공연(2008)
- 2017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작곡콩쿨 특별상
- Animus(2015): ABLAZE Records - Pierrot Ensemble Series Vol. 2 음반(2018)
- 현) 프리랜서 작곡가 & 지휘자, 작곡동인 소리목, 창악회, ISCM Korea 회원



25현 가야금, 타악기와 CRT-TV를 위한 <ZZZ> (2025)

“그날 바다는 온통 Z였네”

황유원 작가의 시 <Z치는 물결>은 파동의 끝이 다른 차원으로 전이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다. 이 곡에서는 “Z”를 파동의 생성과 소멸이 교차하는 에너지 전환의 궤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음악적 언어와 제스처로 전환해보고자 하였다.

가야금과 타악기, 서로 다른 물성의 조합은 이질적인 질감을 교차시키며 스치고, 울리며, 흩어진다. 그 안에서 “Z”는 반복하여 그려지고, 일렁이며, 스며든다.

흔들림의 여운 속에서 파동과 언어, 울림과 형상, 감각과 의식 사이에서 잔상처럼 남는 하나의 장면에 젖어든다.

*“나는 그 물소리에 그만
드러눕고 싶었네”*

이 다 예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및 석사
- 2012 피아노두오콩쿨 작곡부문 1위
- Quatuor Diotima Reading Session 참가
- 현)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부 박사과정 재학



메조 소프라노와 피아노를 위한 <하얀> (2025)

I. 백색소음

II. 눈사람 신비

황유원의 시집 『하얀 사슴 연못』 중 <백색소음>과 <눈사람 신비>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다. 사유와 형태, 존재와 주체와 자아에 대한 “언어”라고 생각하여 이 시를 선택하였으며, 『하얀 사슴 연못』 중 “하얀”을 키워드로 작품을 뽑아 연작작곡되고 있다. 한국과 서양음악의 가곡전통을 따르면서도 현대의 사유적인 음악예술을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새로운 표현이나 사운드적인 충격보다 침잠하고 정련된 심상에 중점을 두고 작곡한 곡이다. “밤”과 “생각”, “꿈” 등의 단어와 “하얀” 혹은 “하얀 존재”. 두 시는 전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시인의 동의하에 축약과 음악에 적합한 발음 수정 등을 거쳐 활용되었다.

“..흰 공터가 생겨나고
거기 빛이 들어요”

“사실 그건 생각이 아니라 기분인데
기분이 꼭 생각인 것만 같아”

박은경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학사 및 동 대학원 작곡과 석사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Régional de Boulogne-Billancourt(DEM:Composition, Orchestration)
- 프랑스 Conservatoire à Rayonnement Départemental de Créteil(CFEM:Ecriture)
- Tokyo Wonder Site&Ensemble Modern Academy in Tokyo, Pan music festival, CMSS Festival, NeoArte Festival, Mise-en Festival in New York, ACL 국제음악제 등 국내외 다수의 음악제 선정 및 참가
- ARKO 주관 스웨덴 국립전자음악연구소 EMS 레지던시 선정 등
- 현)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경희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Two Poetic Pieces〉 for Solo Cello (2025)

I. 무덤덤한 무덤

II. 밤의 아라베스크

이 작품은 시인 황유원의 시 세계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두 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시집 『초자연적 3D 프린팅』에 실린 〈무덤덤한 무덤〉에서 가져왔고, 두 번째 곡은 미발표 시 〈밤의 아라베스크〉에서 모티프를 얻었다.

〈무덤덤한 무덤〉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곡에서는 '죽은 이와 무덤'을 상징하는 느리고 정적인 주제와, '시의 화자'를 표현하는 소란스럽고 생동감 있는 다수의 주제들을 대비시켰다. 이러한 주제들은 각각 독립된 시간과 공간처럼 분리되기도 하고, 서로 스며들며 융합되기도 하면서 시의 정서를 음악적으로 풀어낸다.

두 번째 곡 〈밤의 아라베스크〉는 '아라베스크'의 반복적이고 장식적인 형태에서 출발했다. 곡 전체는 다양한 반복 패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약 30초는 시에 등장하는 '밤하늘의 아라베스크'를 표현하기 위해 B음(하모닉스)과 G#음을 반복 사용하여 마무리된다.

이재홍

- 선화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졸업
- 미국 Queens College of CUNY 석사
- 영국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박사
- 현) 서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창악회 부회장, 작곡동인 소리목 회장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 (2025 개작)

해금과 가야금을 위한 <풍경 II>는 두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악장에서 공통적으로 해금은 '가온도(C4)'음에서부터 두 옥타브 위의 '도(C6)'음까지 순차적인 반음계 상행을 하며 진행한다.

두 악장은 서로 다른 풍경을 그려내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즉 끊임없는 상승, 그리고 정상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회귀하려는 공통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만약 곡의 마지막에 무한히 반복하는 도들이표가 있다면 이 작품은 영원히 상승하며 순환할 것이다. 이렇게 <풍경 II>에서 표현하고 있는 영원한 상승과 순환의 심상을 작곡가는 황유원의 시 <영원히 불타오르고 있었다>에서도 동일하게 느꼈다. 작곡가가 시에서 느꼈던 끊임없는 상승, 상승의 끝인 열반의 상태조차 활활 타오르며 소멸하는 역설, 그리고 시의 마지막에서 '다들 입가에 시커먼 재가 묻어 있었다'라며 모든 것이 타버렸지만 흔적으로 남은 재를 통해 또 다른 순환의 시작점으로 해석한 작곡가의 생각을 음악과 비교하며 감상하기를 바란다.

불타는 이제 도중에 쓰러져 열반에 들어
열반도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르고 있었다
모두가 물처럼 하늘로 올랐다가
물처럼 추락하지 않고 하늘에서 더 높은 하늘
하늘 위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오르고 오르고 오르고 올라
모두가 불타오른 후 불의 손길에서 벗어나
불타오르는 아래에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진입하며 소멸하고 있었다
찬술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영원의 뺨가 오도독
씹히고 있었다
다들 입가에 시커먼 재가 묻어 있었다

황유원의 시 <영원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中

유도원

- 서울대학교 졸업, 네덜란드 헤이그 왕립음악학교 석사 졸업 및 전자음악과정 이수
- 영국 런던대학교(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연구석사 졸업
- 독일 바이마르 국립음대 콘체르트엑자멘(Konzertexamen) 졸업
- 제2회 일신작곡상 수상(단독) 및 제5회 일신작곡상 수상(공동)
- 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부교수



박상민 | Baritone

- 서울대학교 성악과 졸업
- 제34회 성정음악콩쿠르 전체 대상, 제65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제32회 KBS한전음악콩쿠르 금상
- 두남재 한국가곡콩쿠르 최우수상, 음악춘추콩쿠르 대학부 1위
- 신예음악콩쿠르 1위, CMAK콩쿠르 1위



정선인 | Piano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졸업
- 베를린 국립예술대 Diplom,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Konzertexamen
-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쇼팽의 밤, 서울-부다페스트 교류 음악회, 부천 필하모닉 슈만 프로젝트, 독일 멘델스존하우스 초청독주회, 다수의 현대음악제 참가
- 서울대, 건국대, 동덕여대, 장신대 등 강사 역임
- 현) 가천대, 국민대 출강



승경훈 | Flute

- 프랑스 리옹 국립고등음악원 학사 및 석사
- 미국 예일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서울대학교 박사
- 군포 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역임
- 현) CTS 교향악단 수석, 디베르 목관오중주, 현대음악앙상블 위로 멤버,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강사



정부경 | 가야금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한국음악과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석사 및 박사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문화예술위원
- 현) 공간기획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



김승수 | Percussion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예술전문사 졸업
- KBS 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객원수석 역임
-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수 교향악단 객원 역임
- 현) 인천시립교향악단 부수석, 국립 강원대학교 출강, Balken Percussion Ensemble, 퍼커션 듀오 "Pulse Percussion" 멤버, 오르디 앙상블 퍼커셔니스트



김윤희 | Mezzo Soprano

-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과 전문사 졸업
- 국립오페라단 아카데미 장학생
- B단조 미사,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글로리아, 대관식 미사, 레퀴엠, 메시아, 합창 등 다수의 콘서트무대의 독창자로 출연
- 오페라 코지 판 투테, 피가로의 결혼, 카르멘, 헨젤과 그레텔, 리골레토, 더 미디엄, 라 트라비아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마농 외 다수의 오페라 주역



김아름 | Piano

- 선화예고, 서울대 기악과 졸업
- 독일 뷔르츠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성악반주과 졸업
- 독일 볼프강 피셔 실내악콩쿨, 삼익콩쿨, 전국학생장학콩쿨 입상
- 현) 추계예대, 충신대 강사, 앙상블 비트윈, 린트리오 멤버



박기홍 | Cello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영재원 졸업, 모스크바 그네신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 슬라브 국제콩쿠르 첼로부문 1위
- 모스크바 필하모닉 비상임단원 역임
- 현) 중국 SSR Music Entertainment Artist, 중국 베이징 소재 음악학교 출강, 인천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자로 활동중



조혜령 | 해금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학사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
- 국가무형문화재 봉산탈춤 이수자
-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부수석, 이화여자대학교, 경북대학교 출강



서은영 | 가야금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및 전문사 졸업
- 한양대학교 음악연주학 박사
-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
- 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지도단원, 단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출강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작곡동인 소리목

명예고문 김용진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고 문 최승준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임회장 김용진 최승준 길일섭 조인선 김기범 안종덕 윤승현

현 임원 명단

회장 이재홍
총무 유도원 박은경
연구 신혜승 윤승현
회계 서유라
홍보 이다예
후원 강소정

회원

강미정 강소정 강혜리 고영신 길일섭 김기범 김동수 김범기 김수혜 김승림 김시형 김윤진
김정훈 김진호 김현기 류경선 리치천 마도원 박은경 박은하 박정은 박창수 백자영 서유라
신동일 신혜승 안종덕 양문희 유도원 윤승현 윤은혜 이다예 이애련 이용희 이원숙 이은미
이재홍 이진우 이현주 이혜란 임영미 장대훈 장덕산 정미선 조석희 조인선 조창제 최소영
최승준 최진화 최창석 팀슨마이클 한경진 허영한 홍윤경 황성곤



작곡동인 소리목

홈페이지



소리목 Youtube

Youtube



소리목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소리목 페이스북

페이스북

<http://www.sorimok.org>
sorimok_org@naver.com

* 음악회 영상은 소리목 Youtub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연 및 후원문의

총무 유도원 accompano@hanmail.net / 010-7638-1052

후원 계좌

국민 804802-00-071594 예금주: 서유라(소리목)



Composers' Alliance of New Music
작곡동인 소리목